

야곱3

-열한 번째 이야기-



73Pag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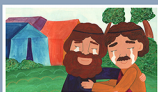
74Page



75Page



76Page



77Page

나 레 이 셴 20년이 지나자 야곱은 떠나는 고향이 많이 그리워졌어요.
어느 날 야곱은 그 동안 모은 가축과 재산을 모두 가지고 고향 가나안
땅으로 길을 떠났어요. 집이 가까워지자 야곱은 걱정이 되었어요.
형 에서가 무서웠기 때문이에요.
야 곱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?

나 레 이 셴 야곱은 먼저 하인들을 형 에서에게 보냈어요.
잠시 후, 하인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말했어요.
하 인 형님께서서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십니다.
나 레 이 셴 그 말을 들은 야곱은 형이 혼내려고 오는 줄 알고 두려웠어요.

나 레 이 셴 야곱은 우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, 하인을 시켜 형에게 줄 선물을
준비했어요. 형 에서가 자신을 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함께 갈 수가
없었어요.

나 레 이 셴 그 날 밤, 야곱은 혼자 앉아 걱정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
어디에선가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.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보낸
천사였어요. 야곱은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.
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버텼어요.
어느 새, 해가 밝아 오자 천사가 말했어요.
천 사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.

나 레 이 셴 천사가 떠나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어요. 야곱의 걱정과는
반대로 형은 반가운 마음으로 따뜻하게 야곱을 맞이했어요.
에 서 보고 싶었다. 동생아!
나 레 이 셴 오랜만에 만난 두 형제는 너무 기뻐 서로 얼싸안고 함께 울었어요.
하나님의 축복과 부모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은 하나님의
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.